의료기기/신성장

Sector Issue Brief 2025. 11. 28

블랙 프라이데이, 메디큐브의 브랜드 파워 증명 중

Check Point

- 메디큐브, 브랜드 파워 증명 중
- 에이피알, 역대 최대 이벤트 매출 전망
- 컨센서스 상향 조정 전망

| Analyst **조은애** | goodkid@ls-sec.co.kr

낙관적이지 않은 블랙 프라이데이 전망에도, 에이피알은 시장 예상 상회하는 역대 최대 이벤트 매출 달성할 전망

▶ 2025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핵심 쇼핑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다수의 전문 리서치 기관 분석에 따르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기간 총 소비 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다만, 소비 지출의 증가 폭(YoY 성장률)은 전년도 수준(하이 싱글)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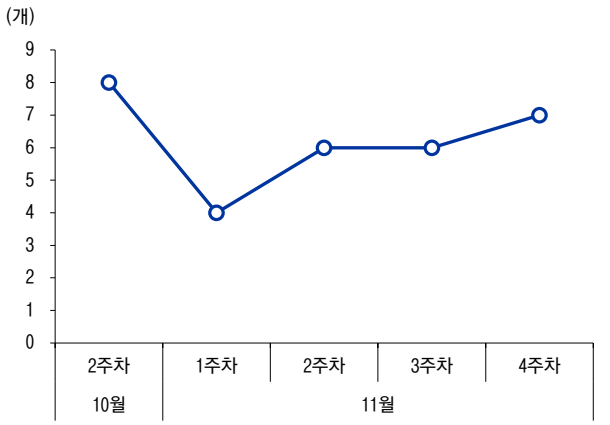
▶ 11월 4주차 현재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Beauty & Personal Care) 100위권 내 K-뷰티 제품수는 21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인 상황. 그 중, 에이피알 메디큐브 브랜드의 제품은 7개로 지난 10월 2주차 프라임 빅딜 데이(TOP 100 SKU 8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프라임 빅딜 데이 대비 11월 4주차 개별 SKU의 순위는 더욱 상승했다는 점이 고무적(제로 모공 패드 1위 유지, 콜라겐 젤리 크림 9위 → 3위, 콜라겐 오버나잇 랩핑 마스크팩 7위 → 6위, PDRN 마스크 7위 신규 진입 등). 10월 프라임 빅딜 데이가 2일간 진행된 것에 비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기간이 길고 할인 폭이 큰 메가 이벤트인 만큼, 시장에서 예상하는 보수적인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전망과는 다르게 사상 최대 이벤트 기간 매출이 기대됨.

▶ 당사가 예상하는 4분기 미국 매출액은 1,922억원(+179% yoy, +27% qoq)이나, 10월 아마존 프라임 데이 및 현재 진행 중인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성과를 감안할 때, 이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특히 연말 쇼핑 시즌 동안 K-뷰티 제품의 아마존 내 역대 최대 점유율 확대와 개별 SKU의 순위 상승은 매출 고성장에 대한 근거

▶ 2분기 중 입점했던 오프라인 채널 얼타(Ulta Beauty)에서는 10월 한 달간 스킨케어 브랜드 중 매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 전통적으로 얼타의 상위 스킨케어 브랜드가 라로슈포제, 디오디너리, 클리니크 등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성과. 당사는 미국 오프라인 매출의 수익성이 B2B 사업부문이나 일본 오프라인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사가 온라인 아마존 및 틱톡 채널을 위해 집행하는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오프라인 매출로 전이되면서 수익성이 견조한 것으로 파악. 오프라인 채널 역시 이익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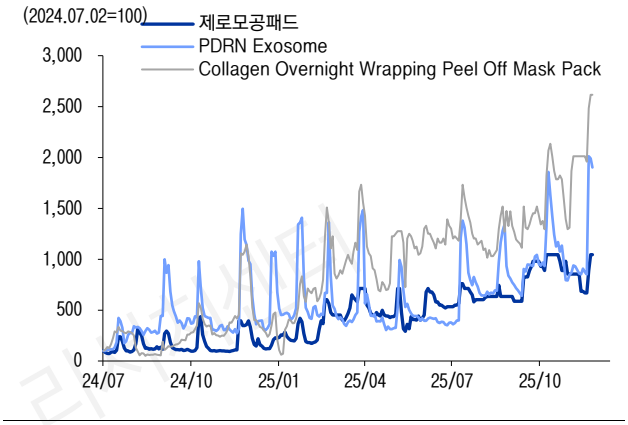
▶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시장의 폭발적인 온라인 성과와 예상치를 상회하는 오프라인 채널의 견조한 수익성을 감안할 때,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026년 컨센서스 영업이익 또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그림1 아마존 Top 100 내 랭크된 에이피알 SKU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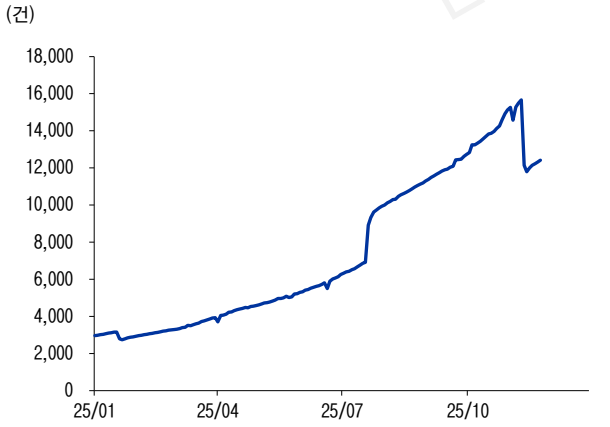
자료: amazon.com,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에이피알 주요 제품 아마존 판매량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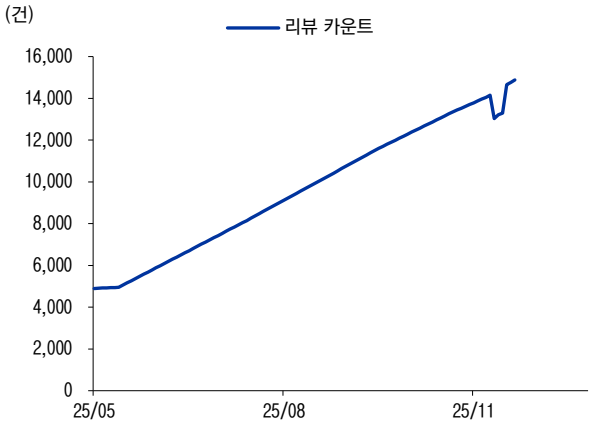
자료: amazon.com,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제로모공패드 리뷰 카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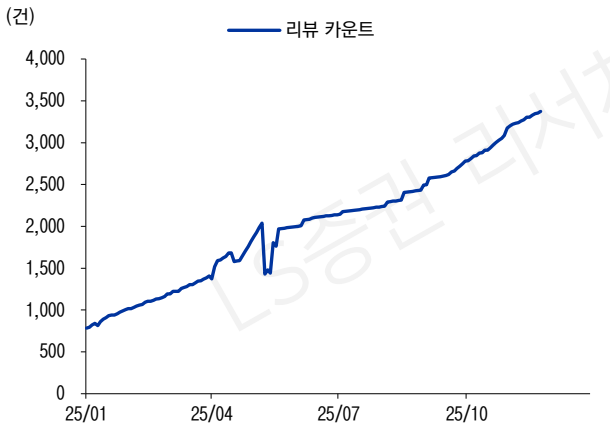
자료: amazon.com,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콜라겐 오버나잇 페이셜 마스크팩 리뷰 카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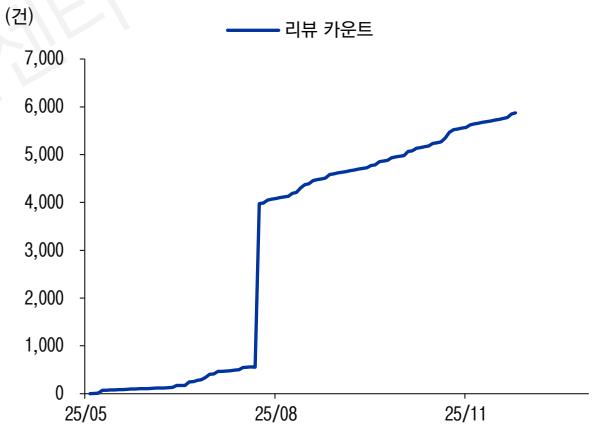
자료: amazon.com,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부스터프로 리뷰 카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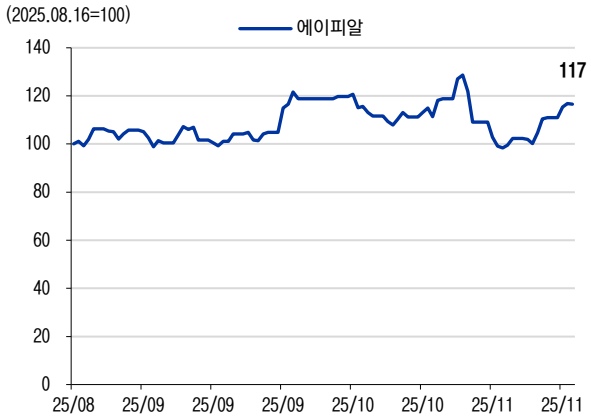
자료: amazon.com,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PDRN 엑소좀 리뷰 카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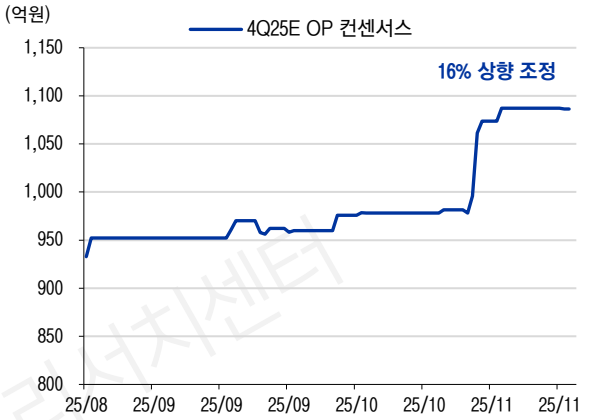
자료: amazon.com,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에이피알 주가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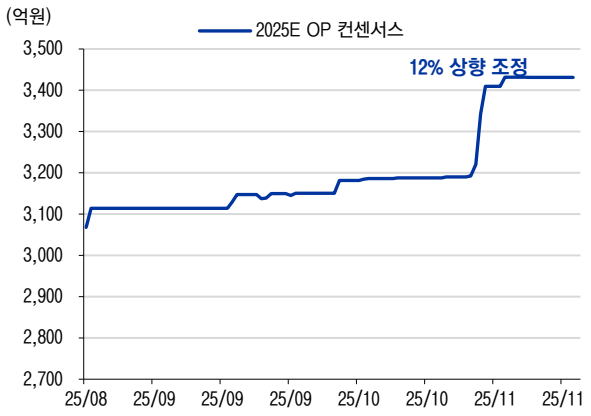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에이피알 4Q25E OP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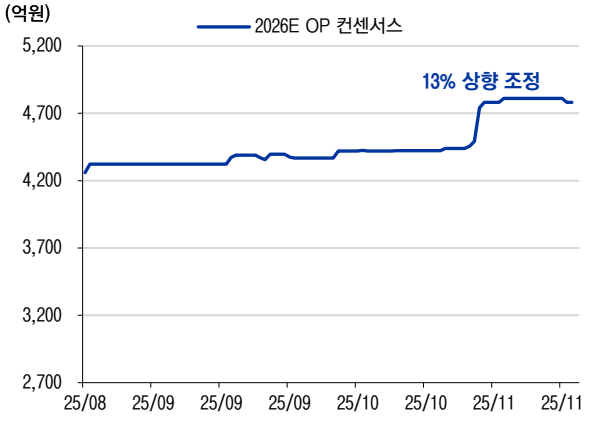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에이피알 2025E OP 컨센서스 추이



자료: FnGuid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에이피알 2026E OP 컨센서스 추이



자료: FnGuide,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조은애).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4% 10.6%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10. 1 ~ 2025. 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